

# 建築儀典 小考

姜 奉辰

建築儀典이라 함은 建築工事を 始役할 때부터 工事が 竣工하였을 때까지 適當한 時期에 吉日을卜하여 建築現場에서 行하여지는 여러가지 儀式節次를 말한다.

이를테면 山神祭, 地鎮祭, 起工式, 着工式, 定礎式, 上樑式, 定極式, 竣工式, 落成式, 落成宴 등의 여러가지 儀式이 工程에 따라 適當한 時期에 執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儀式과 併行해서 때로는 工事中에 犒饌나(工事關係者에게 酒食을 베푸는 것) 頒賜(工事關係者에게 藥品이나 布帛을 나누어 주는 것) 를 베풀기도 하고 落成時에 講演會, 運動會等 記念行事를 舉行하기도 한다.

또 工事が 竣工되면 의례히 工事關係者들에 對한 賞典이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建築儀式은 洋의 東西와 厂史의 古今을 莫論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널리 行하여 왔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建築儀典은 옛날부터 執典해 내려왔으리라고 생각된다.

其 起源은 分明치 않으나 처음에는 오늘날과 같은 어떠한 式順에 依한 一定한 儀式이었다 하기보다는 崇神思想에 立脚한 祭祀를 지내어 山神, 土神, 地神, 柱神, 屋神等을 달래어 工事が 無事히 進行되기를 빌고 工事が 完工되었을 때는 盛大한 落成宴을 베풀고 또 巫女를 불러 成造풀이 굿을 하여 將次 建造物에 侵入할 憂慮가 있는 災殃과 雜鬼를 몰아내어 入住者의 子孫繁昌과 富貴榮華를 빌었던 것이다.

高句麗古墳의 舞踊壁画는 建築儀式的 한 場面이 아닌가도 生覺되며, 지난번에 發見된 百濟古墳의

誌石에서는 오늘날의 定礎石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또 新羅時代의 梵鍾이나 其他 石造遺物에는 建立年代와 建造緣起가 明記되어 있고 高麗나 李朝時代의 建築物에서 發見되는 銘文 記錄에 依하면 當該 建造物에 對한 着工, 上樑, 竣工 등의 年代와 造成經緯 등이 詳細하게 記錄되어 있어 其時마다 建築儀典이 執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李朝實錄等 여러 文献에도 重要한 建造物에 對한 記錄이 傳해 내려오고 있다.

이와같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어떠한 建造物을 造成할 때는 其 建造物에 對한 記錄을 남길 것을 잊지 아니하고 後孫들에게 물려주기 爲한 細心한 配慮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銘文 記錄은 大概 上樑式을 舉行할 때 上樑文을 撰書하여 대들보에 直接 墨書하거나 石造物인 境遇에는 石材面에 刻書해 두었던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 讀者의 參考에 供하고자 한다.

## 1. 熟知山浮石告由祭文

維乾隆五十九年歲次甲寅正月己丑朔初七日乙未, 國王遣臣行副護軍李儒敬謹告于熟知峰之神伏以……(省略) 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尚饗(總理大臣蔡濟恭製進)

祭品 白飯四器餅四器肉湯三器肉炙三器魚湯三器魚炙三器菜三器果三器酒三盞翔走二牲(翔鷄也走猪也)幣帛兩端(玄纁繪各七尺或十二尺)

典祀官兼大祝水原府判官金魯成贊者行副護軍趙雲

祥謁者行副護軍李邦運

이 祭文은 乾隆五十九年(正祖十八年, 西紀1794)에 水原城廓을 築造할 當時 城廓用石材를 熟知山에서 採石할 때 山神에게 採石中 無事하고 安全하기를 빌기 위하여 山神祭를 지냈을 때의 祭文이다.

設床의 後面과 兩側面에 검정色과 분홍色 비단(玄纁)의 장막을 둘러치고 床위에 祭品(牲幣, 醴齊, 粢盛, 庶品)을 陳設하되 炙湯, 菜果, 紅東白西 等の 固有한 設床法에 依하여 陳設한다.

執典은 告祝官과 典祀官들에 依하여 執行되고 祭品은 總理大臣이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 2. 城址始役告由祭文

維乾隆五十九年歲次甲寅正月己丑朔二十五日癸丑國王遣臣行副司直趙心泰謹告于八達山之神伏以……(省略) 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尚饗

典祀官兼大祝水原府判官金魯成贊者安山郡守趙鎮完謁者安城郡守曹允植

이 祭文은 水原城廓의 성터를 다듬는 土工事를 始役할 때 八達山의 山神을 위로하고 工事의 安全을 빌기 위한 山神祭를 舉行했을 때의 祭文으로서 執典節次는 前記한 바와 같다.

## 3. 南門開基告由祭文

維乾隆五十九年歲次甲寅二月己未朔二十八日丙戌國王遣臣水原府留守趙心泰謹告于南城門土地之神伏以……(省略) 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尚饗

典祀官兼大祝水原府判官鄭東協贊者果川縣監金履裕謁者衿川縣監洪景厚

이 祭文은 水原城廓의 南門(八達門)의 基礎工事を 始作할 때 即 起工할 때 土神地神에게 祭를 올려 神靈을 위로하고 工事が 無事히 完成되기를 비는 地鎮祭를 執行했을 때의 祭文으로서 오늘날의 起工式 또는 着工式에 該當할 것이다.

以上 세가지 例文中 年代의 乾隆은 淸의 年號로서 우리나라 李朝 二十二代正祖十八年(西紀 1794)

에 該當되며 甲寅은 歲次이고 己丑朔, 己未朔等은 月建, 己未, 癸丑, 丙戌等은 日辰이다.

中間의 省略한 部分은 其建築을 하게 된 動機나 必要性 및 其建築物의 用途構造概要等을 記載한다.

## 4. 武寧王陵誌石銘文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年六十二歲癸卯年五月丙戌朔七日壬辰崩到乙巳年八月癸酉朔十二日甲申安厝登窆大墓立志如左(王之誌石)

丙午年十二月百濟國王大妃壽終居喪在酉地己酉年二月 癸未朔十二日甲午改葬還大墓立志如左(王妃의誌石)

이 銘文은 1971年 7月 8日 國立博物館長 金元龍博士를 비롯한 發掘調査團一行에 依하여 百濟古墳인 第25代 武寧王陵 玄室앞 羨道에서 發見된 王과 王妃의 誌石에 陰刻된 銘文이다. 두개의 誌石에 王과 王妃의 崩去와 安厝 改葬의 年代等을 明白히 記錄해서 後世에 남기고자 한 것은 恰似 오늘날의 定礎石과 같은 性質의 것으로 느껴진다.

文中 王之 崩去한 癸卯年은 武寧王 23年西紀523年에 該當되며 安厝한 乙巳年은 第26代 聖王 3年西紀 525年에 該當된다.

또 王妃의 壽終한 丙午年은 聖王 4年 西紀526年에 該當되고 改葬한 己酉年은 聖王 7年 西紀529年에 該當된다.

비록 中國의 梁帝로부터 寧東大將軍이란 爵位를 받았으나 後世의 高麗末이나 李朝時代처럼 中國의 年號를 쓰지 않고 干支로 歲次月建日辰만을 使用했던 것은 國內情勢가 어지러웠던 三國時代에서도 自主的인 獨立國家行勢를 했음을 알 수 있다.

## 5. 서울南大門上樑文

正統十三年戊辰三月十七日壬寅巽時立柱上樑提調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判戶曹事鄭采資憲大夫刑曹判書閔伸

(※文中 □표는 判讀하지 못한 글자임)

監役官通訓大夫判□

啓功郎繕工監直長李命敏

……(以下 省略)

別監役□□□□□□副司直……(以下 未詳)

……(以下 省略)

……(省略) 大木司直崔健□

……(省略) 都石手司直申乃行

……(省略) 左过木手副司正崔常□等二十二

右过木手司正鄭金等二十二右过石手朴

永南等十四

耳匠二三番弁□□□串錠匠一二三番合

六十三。

左过石手李義成等十四爐治匠十三名

方軍九百名

各司奴子五百名戊辰三月十六日□□□□折左右道德  
當舡軍五百名

彫刻匠五名

鞍子匠十二名

上樑布施正布三十四匹 木綿二十匹 生絹一疋 陳煮

酒一萬七千三百七十五瓶

滓酒三千八百東海

光□□□併一千五百首

서울 南大門의 上樑文은 二層宗道里, 中道里加添  
長舌, 下中道里加添長舌, 中道里等 여러곳에 墨書  
되어 있으나 上記한 것은 其中 二層宗道里 上側道  
里의 下面에 墨書한 것 中 一部分을 摘記한 것이  
다.

文中 正統十三年은 明의 年號로서 우리나라의  
世宗 30年(西紀 1448)에 該當되며 工事關係者의 人  
員名單은 勿論 上樑式 때 所要된 布帛과 酒肴의 數  
量까지 明記한 것은 興味있는 일이다.

## 6. 水原南門(八達門)上樑文

伏以設重防於新邑有屹崇墉度宏規於層樓相對……  
(省略) 伏願上樑之後地靈霽扶天休滋至山河表裏控  
大邦而有光楹檜穹崇垂永世而維固 上之十八年甲寅  
八月二十五日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臣李命植奉

教撰嘉善大夫開城府留守兼管理使臣李冕膺奉教書

이 上樑文은 上樑後에 建物이 安全하고 永久히  
堅固하게 維持되도록 비는 祝願文으로서 文中 上  
之十八年은 今上 即 正祖를 말한 것이고 上樑글을  
지은이와 쓴자 即 撰者와 書者가 따로 따로임을 알  
수 있다.

## 7. 禮山修德寺大雄殿上樑文

大棟樑曉假和尚 同願天白 大指倫中玼 至大元  
年戊申四月十七日立柱(長舌下端的 銘)

至大元年戊申四月二十四日修德寺造成 象目抄記  
大棟樑朴仁瓊 同願天白 同願英淑……(以下省略)  
(華盤下端的 銘)

修德寺大雄殿은 우리나라에 現存한 高麗時代木  
造建物 7, 8棟中 建立年代가 明確하게 알려진 唯  
一한 建物이다.

上樑文이 얼마나 重要한 價値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文中 至大元年是 高麗末에 國勢가 기울어 元의  
支配를 받았으므로 元의 年號를 使用했던 것으로  
서 西紀 1308年에 該當된다.

大棟樑은 都片手(都木手)로서 當時의 寺刹建築  
은 主로 僧侶가 直接 發願施工했음을 알 수 있다.

以上으로 옛날의 建築儀典에 對한 몇가지 例를  
들어 보았으나 요즘 個人的 木造住宅인 경우는  
다른 儀式은 省略하고 上樑式과 落成宴만을 하는  
것이 常例 이다.

上樑文은 大概 다음과 같이 대들보下端이나 宗  
心道里장허의 側面 또는 下端에 墨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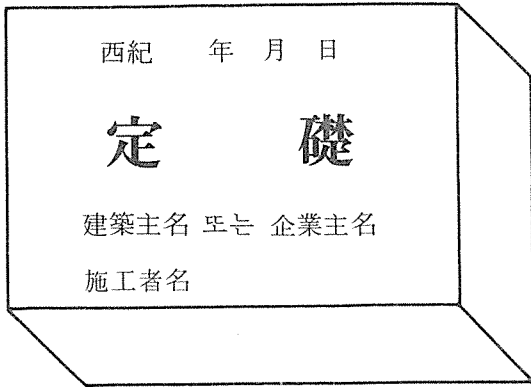
歲次干支 月建 日辰 時 立柱上樑  
또는 年 月 日 時 立柱上樑

應天上之三光 備人間之五福

公共建物인 경우에는 地鎮祭를 省略하여 起工式  
으로 代하고 基礎工事 完成後에 定礎式을, 工事完

成後에 竣工式을 舉行하는 것이 普通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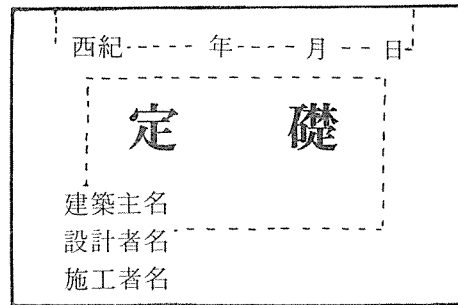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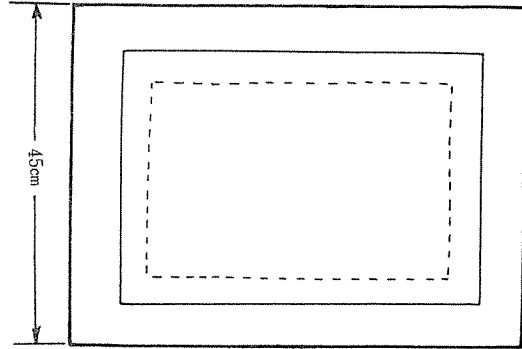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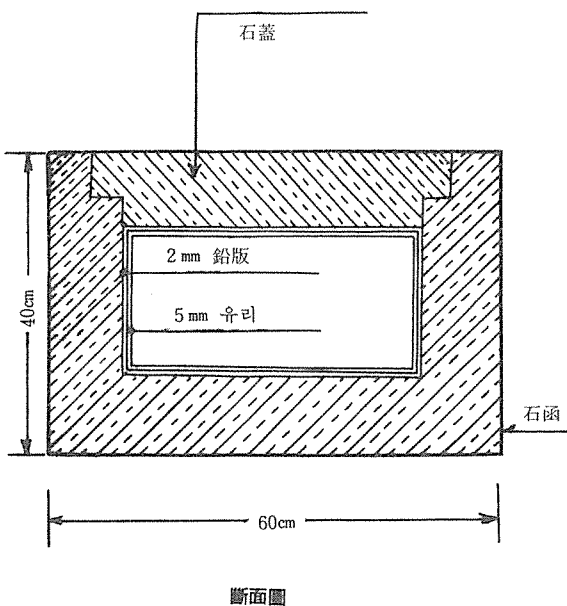
定礎式 때 壁體에 문을 定礎石은 大概 다음 그림과 같이 만들어 陰刻墨入으로 한다.



그러나 이 定礎石은 改善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된다.

筆者가 過去에 몇 個의 建築物에 實施한 바 있는 것을 參考로 紹介코자 한다.

定礎石을 다음 그림과 같이 函으로 만들고 函속에 設計圖面, 示方書, 內譯書等 工事關係一件書類와 建築當時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 各方面



의 記錄 및 記念物等을 넣어 一朝有事時의 記錄保存과 後世에 歷史的 遺物로 傳해주려는 趣旨인 것이다.

또 요즘은 公共建築物은 勿論 個人의 住宅에 이르기까지 大部分 鐵筋콘크리트構造로 하는 것이 常例이기 때문에 木造建築物과 같은 代木나 道리를 올릴 必要가 없으므로 自然히 上樑式을 舉行하지 않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나 筆者는 過去 몇개의 建物에 上樑代身으로 定礎式이란 이름을 붙여 儀式을 舉行하였던 바 關係人士들의 好評을 받은 바 있다.

參考로 其 節次를 적어 본다.

屋層바닥(Roof floor slab)의 콘크리트를 부을 때 建物中心部分에 있는 屋層바닥보(Roof floor beam)의 中央部分의 slab를 60cm×60cm 가량 남겨둔다. 그리하여 이 部分은 定礎式을 舉行할 때 關係人士들로 하여금 concrete를 fitting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 이때 個人的 住宅일 경우에는 金銀製品이나 鑄貨等を 記念으로 投入하여 두는 것도 意義깊은 일일 것이다.

以上과 같은 모든 節次儀式에 따라 工事が 圓滿히 竣工되었을 때는 大概 公共建物인 경우에는 竣工式 또는 落成式을 舉行하고 個人的 建物인 경우에는 告祀를 지낸 후 落成宴을 베푼다.

어느 경우에도 이 때 工事關係의 座目工匠들에 對하여 賞典을 베푸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이 賞典이란 工事關係者에 對하여 物品을 주는 경우도 있고 金錢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요즈음은 普通 感謝狀에 記念品을 添加 授與하는 경우가 많다.

한가지 遺憾스러운 것은 이때 間或 設計者가 漏落되고 또는 招請조차 하지 않은 建築主(또는 企業主)가 있다는 事實이다.

이런 點은 마땅히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筆者는 本協會 會長)

## 〈 公 告 〉

本協會 會員에겐 金뱃지를 職員은 同型의 銀뱃지를, 補助員에겐 小型의 銀色 뱃지를 부착키로 되었습니다. 아직도 뱃지를 구입 못하신 분은 本協會 總務部에서 구입 하시기 바랍니다.

〔1〕 뱃지 代金

(ㄱ) 會員用 金뱃지	(1.1cm × 1.1cm)	1,500원
(ㄴ) 職員用 銀뱃지	(1.1cm × 1.1cm)	200원
(ㄷ) 補助員用 "	(0.9cm × 0.9cm)	200원

